

- **주요 뉴스:** 연준 파월 의장, 인플레이션 상당히 둔화되어 통화정책 조정 시기 도래 강조
 - ECB 정책위원, 9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. BOE는 조심스런 낙관론
 - BOJ 우에다 총재, 경제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가능
 - 연준 9월 금리인하 기대로 글로벌 주식펀드에 대규모 자금 유입
- **국제금융시장:** 연준 파월 의장의 정책조정 시기 도래 언급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9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로 상승, 기술주 강세
유로 Stoxx600지수도 동반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9월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작년 7월 이후 최저로 하락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1.3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정책기조 전환 공식화로 하락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322.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25.1원, 0.2% 하락). 한국 CDS 하락

		8/23일	8/22일	전일대비			8/23일	8/2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634.6	5,570.6	+1.1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0%	3.85%	-5bp
	유럽	518.13	515.74	+0.46%		독일	2.23%	2.24%	-2bp
	중국	2,854.4	2,848.8	+0.20%		영국	3.91%	3.96%	-5bp
	일본	38,364	38,211	+0.40%	CDS 5y	한국	33bp	34bp	-1bp
	한국	2,701.7	2,707.7	-0.22%		중국	59bp	61bp	-2bp
환율	달러지수	100.72	101.52	-0.78%	위험 지표	EMBI+	409	409	-
	유로화	1.1192	1.1112	+0.72%		VIX	15.86	17.55	-9.63%
	엔화	144.37	146.29	+1.33%		WII유	74.83	73.01	+2.49%
	위안화	7.1209	7.1470	+0.37%	원자재	구리	420.10	414.8	+1.28%
	원화	1,328.0	1,343.5	+1.17%		금	2,512.6	2,484.8	+1.1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파월 의장, 인플레이션 상당히 둔화되어 통화정책 조정 시기 도래 강조

-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2%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으며 고용은 하강할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평가. 통화정책 방향은 분명하며, 금리 인하와 속도는 추후 지표 등에 기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
- 아울러 고용시장 둔화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연준은 앞으로 고용시장 냉각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
-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둔화했다며, 첫 금리 인하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. 또한 당초 예상했던 연내 1회 인하보다 더 공격적인 인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
-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는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를 여러 번 인하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금리인하 폭이 아니라 경로라고 발언.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의 견고함에 일부 의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기가 있다고 평가
- 시장에서는 9월 금리인하 폭은 8월 고용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, 특히 파월 의장이 '점진적'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
- ING는 8월 비농업고용이 10만명보다 적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4.5%까지 오른다면 9월 금리인하 폭은 50bp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. Capital Economics는 향후 회의에서 최소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정책위원, 9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. BOE는 조심스런 낙관론

-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성장 전망, 특히 제조업 부문이 가라앉고 있어 9월 금리인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
-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와외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 아직 이르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은 1년 전과 비교해 작아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피력

■ BOJ 우에다 총재, 경제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가능

-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예상과 일치함에 따라 지난 7월말 금리를 인상했으며, 이달초 발생한 금융시장 대규모 매도 공세는 미국 경제상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주요 촉매였다고 언급
- 아울러 경제가 물가와 예측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완화정책을 계속 조정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

■ 연준 9월 금리인하 기대로 글로벌 주식펀드에 대규모 자금 유입

- LSEG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은 8.15~8.21일 한 주간 157.3억달러 순유입되었는데 이는 7.17일 이후 주간 단위 최대 규모. 미국 주식형 펀드에 59.7억달러, 유럽과 아시아 펀드로는 55.5억달러와 43.9억달러 유입
- 채권형 펀드에도 35주 연속 순유입된 가운데 8.15~8.21일 중 112.9억달러가 유입되며 3주래 가장 큰 금액 기록

■ 미국 백악관, '이스라엘-하마스 휴전협상 결렬 직전' 보도 부인

- 22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예비협상은 건설적이었으며,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함께 나와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. 이란의 對이스라엘 보복공격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란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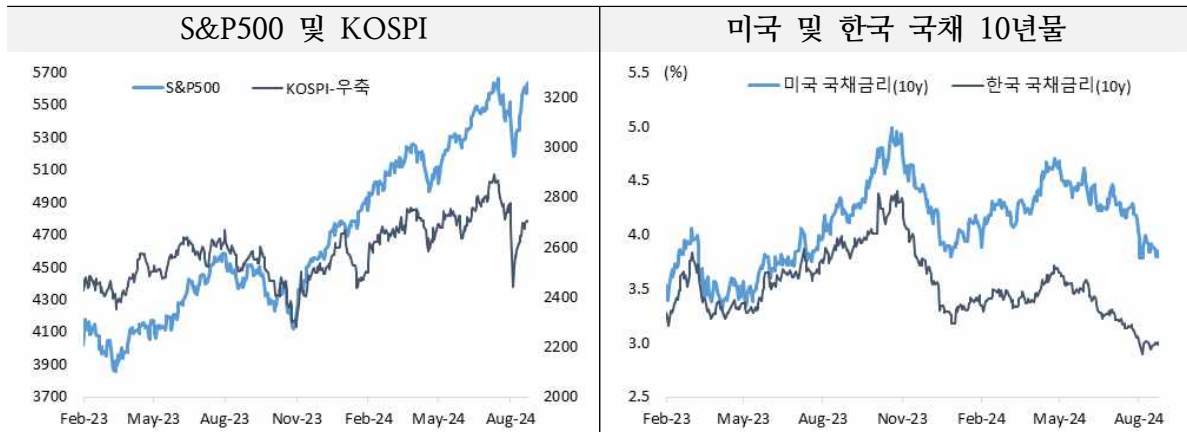
■ 미국, 러시아와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, 인도 총리는 평화협상 중재자 자처

-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국제제재 회피를 돕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·개인 40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굳건한 연대를 강조
- 모디 인도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전쟁 초기부터 평화의 편에 굳건히 서 있다며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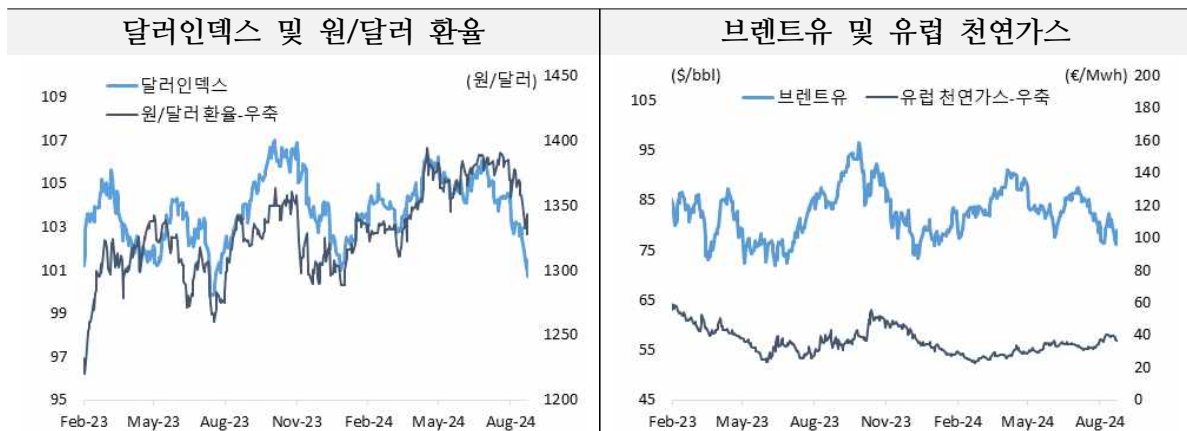
■ 미국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Jr. 트럼프 전대통령 지지 선언

- 케네디 후보는 23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고, 불법이민과 전쟁 종식 등 현안에서 트럼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. 케네디는 최근 5%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다가올 대선 승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